

# 삼성, ‘7만전자’ 복귀 기대 커져 美정책·AI수요 훈풍에 주가 반등

美 세액공제 통과에 투자심리 회복  
마이크론 호실적 반도체 업황 반영  
AI·HBM 수요 확대에 기대감 커져  
미중 공급망 리스크 완화세 지속

7월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6% 뛰며 ‘7만전자(삼성전자주가7만원)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다. 올해 2분기 성적표가 부진할 것이란 전망에도 예상 밖 선전이다. 정부의 정책 기대감과 지난 1일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기대 등의 국내외 호재가 맞물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사자’에 나선 영향이다.

3일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4.93% 오른 6만3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지난 1일 400원(0.67%) 오른 6만200원에 마감한 뒤 사흘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미국 상원이 지난 1일 통과시킨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이 법안엔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공장 건설 시 세액 공제를 25%에서 35%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반도체법은 세액공제 외에도 반도체 공장 건설에 390억 달러(약 53조 원)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750억 달러(약 102조 원)의 대출도 지원하는데, 삼성전자도 보조금을 받았다.

글로벌 리스크도 줄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희토류-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공급망 갈등을 봉합하는데 서명했다.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재개,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완화 등을 담은 합의가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황 전망도 장밋빛이다. 하반기 D램 시장은 HBM을 필두로 견조한 수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 업계의 ‘실적 바로미터’로 불리는 마이크론은 최근 3분기(3~5월) 실적 발표를 통해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적을 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HBM을 포함한 D램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4분기(6~8월) 실적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다. 마이크론은 4분기 매출이 10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한 것으로, 시장 예상치 98억8000만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문제는 실적이다. 시장 예상치는 매출 75조8000억원, 영업이익 6조1000억원가량이다. 하지만 최근 증권사들의

논 높이가 낮아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매출액 72조9000억원, 영업이익 5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업이익은 기존 전망치 대비 약 26% 낮은 수치다. 일각에서는 영업이익이 5조원대 초중반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고대역폭메모리(HBM)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했고, 낸드는 전 분기 대비 가격이 하락하면서 적자 규모가 소폭 확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실적부진이 주가에 반영됐다는 의견도 있다.이수림 DS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하겠으나, 이미 투자자들의 인식이 주가에 반영되어있어 추가적인 부정적 모멘텀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HBM3e 12단의 주요 고객사 공급 기대감이 상존하며 파운드리 고객 확보에 따른 하반기 개선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 ELS 발행 급증… 코스피200 비중 70% 돌파

금리하락·지수 기대 투자심리 회복  
지수형 ELS 53% 가장 높은 비중  
낙인 발생 ELS 24% 비중 7%p 상승

1분기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며 투자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에 따르면, 1분기 전체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5조8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조8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상환액은 11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200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3월 말 기준 잔액은 84조6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조원 증가했다.

특히 ELS 발행액은 1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원(24.1%) 증가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금리 하락과 해외 주가지수 상승 기대가 맞물리며 투자 수요가 회복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수형 ELS가 전체 발행의 5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발행액은 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종목형 ELS는 4조2000억원으로 비중은 42.2%로 나타났다. 기초자산 개수 기준으로는 1개 종목에 투자하는 단일형 상품이 절반가까이를 차지했다.

기초자산별로는 코스피200(4조1000억원), S&P500(3조7000억원), 유

로스톡스50(3조4000억원), 닷케이225(1조4000억원) 순이었다. 특히 코스피200의 비중은 홍콩H지수 사태 이후 급증해, 2023년 1분기 52.0%에서 2024년 67.6%, 올해 70.9%로 지속 상승했다.

ELS 발행 잔액은 5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손실 가능 구간에 진입한 낙인(Knock-In) 발생 ELS는 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했다. 이들 상품은 전체 ELS 발행의 23.9%를 차지하며, 비중도 6.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원금지급형 비중은 51.7%로 절반이상을 차지해, 투자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소환조사 (하이브 의장)

금감원, 사모펀드 지분 매각 과정 확인

금융감독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 총수급 인사가 금감원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해 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이후 처음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달 29일 금감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그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이들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이 사실을 하이브의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해당 거래를 통해 정산받은 이익은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방 의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재 및 검찰 고발 여부를 회부할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 “구어체 AI 분석 기술로 글로벌 기업 도약”

코스닥 CEO 인터뷰

배성환 뉴엔AI 대표

“인공지능(AI)은 기술이 아니라 고객 문제 해결의 도구다. 뉴엔AI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AI를 제공한다.”

배성환 뉴엔AI 대표는 최근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0년간 축적한 비정형 구어체 AI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별 특화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AI 분석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뉴엔AI는 고객 맞춤형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분석 전문 기업이다. 지난 2004년 설립된 이후 국내 최초로 구어체 텍스트 분석 기반의 맞춤형 AI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배 대표는 “천리안·하이텔 등 PC통신 시절 사람들의 대화가 대부분 은어나 구어체로 이뤄지는 점에 주목했다”며 “이런 비정형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다면 큰 시장이 열릴 것이라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비정형 텍스트 분석 독자 기술 확보  
산업별 특화 AI 서비스 고도화 주력  
SaaS·API로 맞춤형 데이터 제공  
다국어 서비스로 해외 시장 공략

회사의 핵심 제품군은 ‘쿼타(Quetta)’ 브랜드로 대표되는 AI 분석 서비스다. ▲고객 맞춤형 분석 플랫폼 ‘Quetta Enterprise’ ▲업종 범용형 SaaS 모델인 ‘Quetta Service’ ▲정제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Quetta Data’로 구성된다.

기업별 맞춤 솔루션인 Quetta Enterprise는 시장 분석, 브랜드 평판, 수요 예측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SaaS 형태의 Quetta Service는 로그인만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K-뷰티나 유통업계처럼 도메인이 명확한 산업에 적합하다. Quetta Data는 기업의 자체 AI 시스템에 연동 가능한 정제된 데이터를 API 형



태로 제공한다.

뉴엔AI의 강점은 구어체 중심의 비정형 텍스트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독자 기술력이다. 배 대표는 “자연어처리(NLP) 기술은 오타자, 은어, 속어, 방언, 신조어 등 불규칙한 데이터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며 “900여개의 분석모델과 550건 이상의 프로젝트 수행 경험, 일평균 2200만건의 데이터 수집 역량을 통해 산업별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뉴엔AI는 산업별 수직 계열화된 AI 분석 SaaS를 확대하고 다국어 서비스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배 대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AI 분석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며 “기술뿐 아니라 고객경험 중심의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현재는 문어체 분석이 주류이지만, 구어체 시장이 커질 경우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다”며 “구어체 NLP는 언어의 변화에 민감하고, 산업별 맥락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진입장벽 때문에 향후 네이바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뉴엔AI와 협력하거나 투자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배 대표는 끝으로 “뉴엔AI는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기술을 제공해왔다.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 한화운용, DB 퇴직연금 사모펀드 1조 돌파

1년 만에 13배 빠른 성장세  
수익률 제고 실적배당 주목

한화자산운용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위탁운용 사모펀드 시장에서 빠르게 몸집을 불리며 총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다.

한화자산운용은 자사의 DB 퇴직연금 위탁운용 사모펀드 총 순자산 규모가 지난 달 말 기준 1조224억원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사업 본격화 이후 약 9배 성장한 수치다. 같은 기간 DB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시장 전체가 약 60%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시장 평균보다 13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DB형은 기업이 금융회사와 계약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자산운용사가 DB 적립금을 위탁받으면 실적배당형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DB 퇴직

연금 시장은 여전히 수익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DB형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4.04%로, DC형(5.18%)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5.86%)보다 낮았다. DB 퇴직연금 운용사 10곳 중 9곳이 적립금 90% 이상을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화자산운용은 실적배당형 투자에 대한 고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과 컨설팅 역량으로 시장을 빠르게 확대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용 전략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 강화 등으로 고객 신뢰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마케팅부문장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지 못할 경우 정부나 미래 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